

한 - 중 연구망 연동, 동북아 R&D 허브의 길 열어

한 - 중 첨단 과학기술정보 교류의 길이 열렸다.

지난 4월 8일, 우리 연구원과 중국전산망정보센터(CNIC, 소장 Yan Baoping)는 동북아 R&D 허브 기반 조성을 알리는 한 - 중 연구망의 국제 연동과 과학기술정보인프라 협업체제 구축에 관한 업무협력을 체결했다.

이로써 우리 연구원은 기존에 구축된 한 - 일간의 연구망(API)에 이어 중국과도 보다 긴밀한 과학기술협력 체제를 갖추게 되었고, 더 나아가 한 - 중 - 일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시대 R&D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이번 협정은 세계 최초로 추진되고 있는 세계 과학기술정보 고속도로 '글로리아드(GLORIAD)'에 중국과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Signing Ceremony of Memorandum of between CNIC(CSTNet)-KISTI(KREONET) Apr. 8, 2004.



디지털로 먼저 연 남북통일, “백두산의 자연”

우리 연구원은 지난 2월 17일, 북한 과학원 산하 중앙과학기술정보사(CAST)와 공동으로 “백두산의 자연”이라는 디지털 송서를 개발했다.

이 CD롬에는 북한에서 자체적으로 연구한 2,200년의 ‘백두산송사’ 원문 자료와 백두산 동식물에 대한 자세한 해설과 생생한 사진 자료를 담고 있어 백두산 자연책이라고 일컬어도 손색이 없는 내용들, 그리고 3차원 입체지도와 지리정보시스템(GIS) 등이 실려 있다. 자료 자체의 중요성과 함께, 민족의 영산 백두산의 귀중한 자료를 남북 과학기술정보 연구기관이 함께 만들어냈다는 역사적인 의미까지 담고 있는 이번 CD롬은 웹사이트(pds.nktech.net)에서도 볼 수 있다.



KISTI, 이제 엠파스에서 만난다



우리연구원은 지난 3월 8일,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엠파스와 함께 국내·외 2,700여 만 건의 과학기술 자료를 무료로 지원하는 과학기술 전문 서비스를 시작했다.

(<http://science.empas.com>)

과학기술 최신 뉴스와 연구 논문들을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고, 과학 분야에서 떠오르고 있는 인기키워드와 검색 순위를 찾아볼 수 있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연구자들에게는 고급 과학기술 자료를 손쉽게 제공하고, 일반인들에게는 알기 쉽고 재미있는 과학상식을 제공함으로써 과학기술의 대중화를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중국 과기부, "KISTI의 과학기술인프라 벤치마킹 하고 싶다"



우리 연구원은 지난 1월 5일, 중국 과기부의 "국가 과학기술 인프라 기술조사단" 오파이 단장 일행을 접견했다. "한국의 과학기술인프라를 벤치마킹하고 싶다"고 방문 목적을 밝힌 오파이 단장은 이날, 조영화 원장과 함께 한·중 "국가 과학기술인프라 건설 강화"에 관한 업무협의를 가졌다.

원로 과기인력 활용방안 찾는다



지난 2월 4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원로 과학기술 인력의 효율적 활용방안”이라는 주제로 과학기술정책 심포지움이 개최됐다.

공공기술연구회 박병권 이사장,

김시중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 KISTI 조영화 원장

고경력 과학기술인 등 100여명이 참석한 이 심포지움에서는

“고령화시대에 있어 과학기술인력의 활용 방안”과

“고경력 과학기술자 활용체제 구축방안”,

“과학기술기획·평가에 있어서 원로과학기술자의 역할” 등에 관한 학계전문가들의 발표와 깊이 있는 토론이 이뤄졌다.

기가급 네트워크로 슈퍼컴과 천체망원경 공유



우리 연구원은 기가급 초고속 네트워크를 통해 연구자들이 첨단 정보와 슈퍼컴퓨터, 천체망원경 등의 고성능 장비를 상호 공유하는 온라인 협력 연구체제(e-R&D 체제)를 구축했다.

이번에 기가급 네트워크를 지원받는 서울대, 고려대 등 15개 기관은 앞으로 초고속 네트워크 기반 위에 핵 가속기, 천체망원경 같은 값비싼 첨단 기자재뿐 아니라 전문 인력자원들도 서로 공유, 온라인 협력연구를 할 수 있게 됐다.

주한 뉴질랜드 대사와 IT·BT 융합기술 업무협약



지난 2월 18일, 주한뉴질랜드 대사 데이빗태일러(Ambassador David Taylor) 일행이 우리 연구원을 찾았다. 대사는 연구원의 최첨단 슈퍼컴퓨터와 물리행기상현실시스템, 초고속연구망 등을 둘러보고, 첨단지식정보인프라 선도기관으로서 KISTI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였으며, 조영화 원장과 한·뉴질랜드 IT·BT의 융합기술 및 기술·특허분식 등에 관해 업무협의를 가졌다.

KISTI - 슈투트가르트대 MOU, 슈퍼컴 공동연구



우리 연구원은 지난 3월 10일, 독일 베를린 현지에서 슈투트가르트 대학(총장 Mr. Joachim Schwanze) 슈퍼컴퓨팅센터(HLRIS)와 '과학적 가치화 연구개발 및 첨단 그리드 사업 공동 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전문가 교류, 공동연구프로젝트, 슈퍼컴퓨팅 사용자 지원 프로그램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 슈퍼컴퓨팅기술 형성에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과 생명정보시스템 기술 공동개발



우리 연구원 바이오인포메틱스센터는 지난 3월 22일, 일본 산업기술종합연구소(AIST) 생명정보과학센터(CBRC, 소장 Dr. Yutaka Akiyama)와 "생명정보시스템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체결을 가졌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바이오인포메틱스 전문가 교류, 공동연구프로젝트 등 생명정보시스템 기술 개발을 위한 다양한 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세계 유명도서관 정보, 무료로 본다



세계 유수의 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고급지식을 무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우리 연구원은 지난 3월 국내 이용자들에게 해외의 각종 정보서비스를 한글로 제공하는 'Question 포인트'를 구축하고 서비스를 시작했다. 전 세계에 산재한 정보자원을 통합해 활용하는 서비스는 이번이 국내 처음으로(<http://library.kisti.re.kr>)에 들어가 원하는 정보를 입력하면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KISTI, 고려대와 정보교류 협력체결



우리 연구원은 지난 2월 19일, 고려대학교와 "기술·정보 교류 및 협동 연구 촉진"을 위한 상호 협력에 합의하고 체결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정보 공유 시스템을 개발하고, 슈퍼컴퓨터를 이용한 첨단 기술 개발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등 사·지 효과 창출을 위해 노력 할 예정이다.

조영화 원장, "21세기 경쟁력은 정보" 특별 강연



우리 연구원 조영화 원장은 지난 1월 30일, 송남대학교 산·학·연 교육과에서 이공계 미취업자 연수생을 대상으로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와 정보 마인드" 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가졌다.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산업자원부의 "이공계 미취업자 현장 연수 사업"의 일환으로 이뤄진 이번 강연에서 조영화 원장은 "21세기의 진정한 경쟁력은 정보에서 나온다"는 내용을 역설해 연수생들에게 호응을 얻었다.